

석유화학, BRICs 수출 “부진”

중국 제외하고는 수출실적 미미 ... 신흥시장 개척 절실

신흥시장의 대표로 꼽히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디아·중국)의 수출이 활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석유화학제품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BRICs 수출 중 석유화학제품은 합성수지가 전년동기대비 46.2% 증가한 10억74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석유제품은 48.1% 증가한 12억5000만달러, 합성원료는 59.9% 증가한 7억9400만달러를 수출했다.

그러나 국가별로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각국의 수입증가 기여율 상위 20위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비했다.

중국의 한국상품 시장점유율은 2003년 10.4%에서 2004년 1-6월 11%로 증가했으며 석유제품은 59.1% 증가한 12억1700만달러로 중국 전체 석유제품 수입시장에서 27.3%를 차지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수입증가 기여율 상위 20대 품목 중 의약품 10만달러, 고무타이어 100만달러를 제외하고는 석유화학제품은 미비한 반면 자동차, 철강, 컴퓨터 및 통신기기가 전체 수출증가를 이끌었다.

브라질도 질소화합물이 2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5.9% 감소했고 살충제 역시 17.3% 감소한 40만달러를 수출했다.

BRICs 수출증가율

(단위: 100만달러, %)

국 가	2003		2004(1-6)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중 국	35,110	47.8	23,541	57.2
브라질	1,137	▽8.8	861	45.3
인디아	2,853	106.1	1,689	28.6
러시아	1,659	55.7	1,064	56.1
BRICs 합계	40,759	48.5	27,155	54.6

자료) 산업자원부

인디아는 전체 수출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수입시장 상위 20품목 안에 환식탄화수소가 64.4% 감소한 200만달러를 나타낸 반면, 메탄올은 76.3% 증가한 200만달러를 수출했다.

BRICs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액정디바이스, 기계, 자동차부품이 전체 상승세를 이끌어 2004년 1-6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4.6% 증가한 271억6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2%를 차지했다. <이범의 기자>

<화학저널 2004/08/25>